

셀프스터디의 배경과 특징 탐색

서울난우초등학교 이영국

I. 들어가는 말

내가 처음 연구를 시작했을 때 나의 모습은 타인의 경험을 드러내고자 하는 연구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공부하다보니 나의 경험을 드러내는 것이 타인의 경험을 드러내는 것보다 더욱 의미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내가 만난 학자들의 권고가 있었으며 그들의 견해에 전적으로 공감했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느끼는 체험이 의심의 여지가 없이 더욱 분명한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타인의 경험을 내가 느끼는 것과 나의 경험을 내가 느끼는 것의 차이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후자를 명증하다고 생각했으며 이 경험을 의미 있게 드러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하여 시작된 논문이 나의 멘토링 체험이었고, 그 이후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들이 나의 체험과 관련된 것이었으며 최근에 ‘셀프스터디’¹⁾(self-study)라는 연구방법론을 방편으로 나의 운동 경험을 드러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셀프스터디에 관심을 옮긴 것이다. 그리하여 결국, 셀프스터디의 배경과 그 특징을 드러내는 일로 연구 주제를 잡은 것입니다. 과연 셀프스터디가 어떻게 해서 생겨났으며, 그 특징이 무엇인지, 진작부터 발생한 호기심이었지만 뒤로 미루다가 이제야 펜을 든 것입니다. 원래의 의도는 ‘1인칭 체험연구의 배경과 특징 탐색’이라는 제목으로 1인칭 체험연구를 실행연구, 자문화기술지, 셀프스터디로 구분하면서 각각의 성장 배경과 특징을 다루려고 했으나, 시간도 부족하고 연구량이 적지 않을 것 같아서 셀프스터디부터 시작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2장은 셀프스터디의 배경을 태동과 성장이란 부제를 달고 시작하며 3장엔 셀프스터디의 특징을 다루면서 마지막 장은 셀프스터디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무엇인지 제시해보기로 하겠습니다.

II. 셀프스터디의 배경: 태동과 성장

1992년에 미국교육학회(American Education Research Association)에서 Hamilton과 Pinnegar 등이

1) 기존 학자들이 self-study를 ‘자기수업연구’, ‘셀프 연구’, ‘자기연구’라고 번역했던 것과는 달리, 이영국(2016a, 2016b)은 영어 발음 그대로 ‘셀프스터디’라고 명명하였습니다. 자기수업연구는 수업 이외의 교육적 맥락(코칭, 멘토링 등)을 간과할 수 있으며, 셀프 연구는 외래어와 우리말을 혼용한 것이어서 이름의 통일성이 부족하고, 자기연구는 self를 ‘자기’로 번역한 것인데, ‘자기’를 국립국어원(www.korean.go.kr)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검색해보면 자기의 뜻이 무려 11가지나 되기 때문에 자기연구에서 ‘자기’가 정작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여기에서도 self-study를 영어 발음 그대로 ‘셀프스터디’로 명명하기로 하겠습니다.

속한 ‘Arizona Group’이 중심이 되어 셀프스터디에 대한 세미나를 처음 열었으며 특히 교사 연구, 반성적 실천, 실행 연구 등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들이 많이 참석했습니다(Samaras & Freese, 2009). 이 때 셀프스터디의 연구 이슈들은 교사 교육자 자신의 수업 상황에 대한 반성과 관련된 것으로서, 교사의 개인적이며 전문적인 문제 상황들, 정년보장제의 드러나지 않은 규칙들, 교사 자신의 신념을 수업 상황에 실현시키는 것들, 교수 방법에 대한 탐구가 주된 발표 거리였습니다. 1993년엔 미국교육학회 소속에 ‘티칭 및 교사교육 실천에 관한 셀프 스터디’ (Self-Study of Teaching and Teacher Education Practices: S-STEP)라는 특별한 관심사 집단(Special Interest Group: SIG)이 조직됐는데 이 그룹이 결성되면서부터 셀프스터디의 영역이 새로운 연구방법론으로 부상하기 시작했으며(Hamilton et al., 1998), 전문적인 네트워크의 구축 시도, 연구자들 사이에 협력적 연구 등과 같은 움직임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초창기 교사교육자들의 문제의식,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예비교사)이 현장의 교사가 되며, 나중에 이들에 의해 학생들이 축복받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면서 “나는 학생들에게 잘 가르치고 있는가?”라는 자기 성찰의 분위기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자신들의 수업을 성찰하는 시도(셀프스터디의 수행)를 하면서 예비교사들에게 자신들이 원하는 교사(학생들과 함께 자신의 수업을 개선하는 교사)가 되기를 갈망했습니다(Hamilton & Pinnegar, 2000).

Russell, Pinnegar, Hamilton 등이 셀프스터디의 공동체 형성 분위기를 주도한 결과, 1996년에 S-STEP과 캐나다 퀸즈대학교의 후원으로, 영국의 East Sussex에 위치한 Herstmonceux Castle에서 네 개 대륙—북미, 남미, 호주, 유럽—의 대표자들 80여명이 참가하는 첫 번째 Castle회의가 4일 동안 열렸습니다. 이 Castle회의는 셀프스터디의 정체성과 구성 요소 등을 묻는 질문과 토론의 장이었으며 이 회의의 결과 ‘수업 실천의 재개념화: 교사교육에서 셀프스터디’ (*Reconceptualizing Teaching Practice: Self-Study in Teacher Education*)란 책이 발간되었습니다(Hamilton et al., 1998). 이와 같이 셀프스터디에 대한 학문적 논의의 장을 처음으로 마련한 Castle회의 참가자들은 격년제 모임 방식의 Castle회의를 유지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으며, 결국 격년제 방식의 Castle회의가 1996년부터 2016년까지, 20년 동안 총 11회 이어졌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셀프스터디 공동체(S-STEP)가 특이할만한 업적들을 남겼는데, 그 중 한 가지가 2004년에 발간한 “티칭과 교사교육 실천에 대한 셀프스터디 핸드북” (*The International Handbook of Self-Study of Teaching and Teacher Education Practices*)이며 (Loughran, Hmilton, LaBoskey, & Russell, 2004), 나머지 한 가지가 2005년에 셀프스터디 전문 학회지인 “교사 교육 연구” (*Studying Teacher Education*)가 출간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핸드북과 전문 학회지의 출간으로 인하여 여타의 학계가 셀프스터디 연구물에 대대적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했으며 이른바, “셀프스터디 학파” (Self-Study School)가 형성되는 데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합니다(Samaras & Freese, 2006).

제1회 Castle회의를 주도한 Russell, Pinnegar, Hamilton 등이 모두 대학에서 교사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수인 만큼, 초창기 셀프스터디 연구물들의 내용도 교사교육자로서의 삶—교사교육자로서(나)의 어려움, 티칭의 의미와 맥락, 학생들과의 상호작용, 가르침과 배움의 역동적인 순환과정 등—을 드러낸 것들이 대부분이었으나(Richards & Russell, 1996) 점차적으로 교사교육자와 현장의 교사들이

협력적으로 셀프스터디를 공동 연구하는 형태를 보이기도 합니다(Freese & Makaiau, 2012; Hawley et al., 2012).

이와 같은 셀프스터디의 방법론을 국내에 소개한 학자는 최의창(2004, 2005, 2010)인데, 그는 2000년대 초반, 서구에서 태동하고 있는 셀프스터디의 방법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국내에서 최초로 self-study를 자신의 수업활동에 대한 탐구활동으로서, “자기수업연구” 라고 명명하였으며, 교사교육자인 자신의 수업활동을 반성적으로 드러내는 연구를 직접 수행하기도 하였습니다(최의창, 2005). 국내의 경우도 미국과 같이 교사교육자가 먼저 셀프스터디의 방법론을 수용하면서 실천적·반성적 전문인의 역할을 강조하였으며(최의창, 2010), 교사교육자인 김진희(2011)도 ‘자기수업연구’ 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수업 실천 행위를 드러내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유정애(2010)는 셀프스터디를 ‘셀프 연구’ 라 명명하면서 국가수준 체육과 교육과정 개발자의 부담감을 드러낸 연구도 있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스포츠교육학을 전공하는 교사교육자로서, 타 교과 교육학²⁾에 비하여 체육교과 교육 영역에서 셀프스터디의 방법론을 일찍 수용했음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교사교육자인 이혁규 등(2012)도 셀프스터디를, 자신의 교육실천 행위를 되돌아보게 만드는 ‘자기연구’ 라 명명하면서, 자기연구를 통하여 교육 현장의 개선과 새로운 변화를 모색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010년을 기점으로 몇몇 교사교육자들의 전문성 함양에 초점을 둔 셀프스터디의 방법론이 현장의 교사연구자들에게 파급되기 시작합니다. 예컨대, 축구와 테니스, 농구와 배구 같은 경쟁 활동을 가르치거나 배웠던 경험을 토대로 교수학습 체험의 의미와 맥락을 드러낸 이영국과 이재용(2013)의 연구에서 시작하여, 체육교사 자신의 수업 비평 경험을 분석한 심준석과 김진희(2014)의 연구로 이어졌으며, 체육시간에 교사(연구자 자신)와 학생 간의 관계를 ‘멀어지는 관계’와 ‘다가가는 관계’로 구분한 오중근(2015)의 연구, 연구자 자신의 테니스 경험을 바탕으로 10가지의 테니스 코칭 유형을 제시하고, 연구자 자신의 운동 습관과 Dewey의 습관 개념을 토대로 운동습관의 의미와 맥락을 드러낸 이영국(2016a, 2016b)의 연구 등으로 이어졌습니다. 교사교육자를 중심으로 셀프스터디의 방법론에 대한 필요성을 추구하고 있는 타 교과 교육학에 비하여(조광희 등, 2016) 체육교과 교육에서는 현장 교사를 중심으로 셀프스터디가 활발히 수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III. 셀프스터디의 특징

1. 현상학적 태도로 나를 바라보기(연구자의 태도)

현상학적인 태도란, 정신과 물체를 근본적으로 다른 것으로 본 Decartes(1596~1650)의 태도보다는(최명관, 1983) 세계의 의미를 파악하는 나의 존재에 관심을 기울이는 Husserl(1859~1938)이나 Heidegger(1889~1976)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2) 과학 교육 영역에서는 조광희 등(2016)과 최재혁 등(2016)을 중심으로 셀프스터디의 방법론에 대한 필요성을 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표 1 . 셀프스터디(S-S) 선행 연구를 토대로 생성한 셀프스터디의 특징

Feldman, Paugh, & Mill(2004)이 제시한 S-S의 이론적 토대	Samaras(2011)가 제시한 S-S의 특징	Barnes(1998)가 제시한 S-S의 특징	→	셀프스터디의 특징
실존주의적 태도	개인적 경험과 맥락 드러내기		→	현상학적 태도로 나를 바라보기
	비판적 협력, 투명하고 체계적인 연구과정	협력적인 자세	→	협력 과정 제시내기
	학습 경험, 지식의 생성과 표현	개방성, 재구조화	→	성장의 가능성과 경험 드러내기

Descartes는 ‘방법서설’에서 방법적 회의를 통해 도달한 명석 판명한 사실은 ‘사유하는 것(res cogitans)’이었고, 이와 더불어 연장으로서 기하학적 도형 등은 감각 세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속해서 존재하는 실재였습니다(서동은, 2016). 플라톤의 이상(플라톤의 인식론: 감각의 세계를 떠나 객관적 인식의 세계로 넘어가야 함을 말함)에 따라 Descartes의 인식론은 언제나 사물 세계를 인식하는 ‘나’를 주변 세계에서 떼어서 전제하는 다음, 이 ‘나’와 나 밖에 동떨어진 세계가 따로 존재한다고 전제하는 데서 출발합니다(서동은, 2016). 그러나 Husserl(현상학의 창시자)의 ‘나’는 언제나 주위 세계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Husserl은 유럽 근대학문의 위기를 초래한 실증주의를 비판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철학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가 창안한 ‘현상학적 환원’(phänomenologische Reduktion), ‘초월론적 주관’(transzendente Subjektivität) 등과 같은 개념은 후에 Heidegger, Merleau-Ponty(1908~1961), Sartre(1905~1980), 이남인 등에게 영향을 끼칩니다(김화자, 2014; 이남인, 2004; 지영래, 2014).

Heidegger(Husserl의 제자)의 ‘나’는 세계를 의식하고 있는 주체로서, 세계에 의미를 부여하는, Husserl의 ‘초월론적 주관’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Heidegger에 이르러 ‘나’는 ‘세계 내 존재’로서 세계 및 대상을 구성하는 해석의 주체가 됩니다(이남인, 2004). 특히 그는 세계에 대한 해석과정 속에 ‘전체’에 대한 추상적이며 막연한 이해와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 사이에 반복되는 ‘해석학적 순환’의 구조가 존재한다고 하는데(이남인, 2004), Hamilton과 Pinnegar(1998)는 이러한 해석학적 태도를 셀프스터디의 방법론으로 수용하면서 우리 자신의 텍스트(self-text)에 대하여 해석학적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Husserl의 저작에 관심을 가지면서 자신의 철학을 전개시킨 Merleau-Ponty는 과학적 세계가 존재할 수 있는 토대로서 ‘현상적 장’(생활세계)을 해명하는 일에 몰두합니다(이남인, 2009). 그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서로 얹혀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리하여 보이는 몸과 보는 몸이, 보는 나와 보이는 내가, 나와 타자가 교차됨을 밝히면서 전자와 후자가 하나의 직물(chiasme)처럼 연

결된 제3의 존재로서 ‘살’ (chair)의 존재론적 특징을 드러냅니다. Merleau-Ponty의 ‘몸의 키아즘’은 후에 ‘신체화된 인지 이론’에 영향을 미치는데(김화자, 2014), Tinning(2014)에 따르면, Merleau-Ponty의 ‘체화된 지식’ (embodied knowledge)이 셀프스터디에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이 체화된 지식이란 내 몸의 키아즘을 토대로 형성된 지식을 의미하기 때문에 셀프스터디에서는 보이는 몸과 보이지 않는 몸, 보는 나와 보이는 나, 나와 타자 사이의 얽힘 속에서 발생하는 깨달음을 드러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Husserl의 지향성 개념과 현상학에 영향을 받은 Sartre는 자신의 실존 철학을 정립하면서, “실존은 본질에 선행한다.”라는 명제를 남깁니다(지영래, 2014). 인간으로서 우리는 살아가기도 전에 미리 정해진 본질이란 있을 수 없으며 ‘나의 본질’은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언제나 수정 가능한 상태로 열려 있고, 매순간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 행동함으로써 나의 본질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지영래, 2014). Feldman et al. (2004)은 Sartre의 실존주의가 셀프스터디의 이론적 토대가 될 수 있다고 하면서, 내 자신을 연구의 초점에 두되 내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며 행동하는 실존주의적 태도를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Husserl과 Heidegger의 관계를 총체적으로 해명한 국내 현상학자 이남인은 ‘질적 연구’³⁾에도 관심을 기울이는데, 최근 질적 연구를 “현상학적 체험연구”(이남인, 2005, 2014)라고 명명하면서 다양한 유형의 체험연구를 제시했습니다. 특히 그는 셀프스터디와 같이, 연구자와 연구참여자가 동일한 체험연구를 여타의 연구보다 더 높은 수준의 명증성을 지닌 것으로 봅니다. 또한 그는 ‘반성’과 ‘해석’의 방법으로 체험연구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하면서, 현재 연구자 자신의 심리 상태에 대한 지각, 과거의 체험에 대한 기억, 앞으로 닥칠 체험에 대한 예기와 같은 반성의 방법을 통해 도출되는 연구—연구자와 연구 참여자가 동일한 체험연구—의 결과가 타인의 신체적 표현을 매개로 수행되는 해석의 방법을 통해 도출되는 연구—연구자와 연구 참여자가 동일하지 않은 체험연구—의 결과보다 높은 수준의 명증성을 지닌다고 합니다(이남인, 2014).

지금까지 언급한 철학자들은 모두 현상학자이며 이들의 주장이 셀프스터디를 수행하는 데 적지 않은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셀프스터디는 나 자신이 처한 상황을 드러내면서 독자들이나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공감대를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공감이란 그냥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현상학적인 태도로 나를 의식하는 경험 속에서, 이를 토대로 셀프를 더 깊이 있게 드러낼 수 있을 때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다음에 언급할 ‘협력 과정 제시하기’, ‘성장의 가능성 드러내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현상학적인 태도로 나를 바라보기’는 공동체 구성원들과의 협력 과정이 수반되며, 이와 더불어 연구자 자신의 성장 경험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2. 협력 과정 제시하기(연구 방법 및 결과에서)

3) 이남인(2014)은 질적 연구의 목적이 수학적으로 계량 가능한 세계를 구성하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세계 이외에 다양한 세계들을 해명하는 데 있다고 합니다.

‘협력 과정 제시하기’는 셀프스터디를 수행할 때 동료들과 소통하면서 문제를 해소하는 협력적 작업이 수반되는데(Barnes, 1998; Samaras, 2011) 이러한 과정을 셀프스터디의 텍스트에 기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Barnes(1998)는 셀프스터디의 특징을 개방성(openness), 협력성(collaboration), 재구조화(reframing)로 기술했는데 이 중에 ‘협력성’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동료 교사교육자나 학생(예비 교사)들과의 소통 과정 속에서 다양한 관점을 읽을 수 있고 ‘나’의 문제점이나 어려운 상황들이 개선되거나 새롭게 틀을 짤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Samaras(2011)도 셀프스터디를 비판적 동료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동료들의 피드백을 수용하면서 협력하는 과정 속에서 사고의 폭이 확장되며 깨달음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셀프스터디의 발생 자체가 교사교육 공동체에서 시작했기에 셀프스터디의 전제조건으로서 공동체의 구성원들의 협력적 작업을 요구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볼 수 있습니다. 2명의 교사교육자의 협력적 연구로서, Fletcher & Casey(2014)의 연구는 ‘협력학습’(Cooperative Learning) 모형을 대학 체육수업 시간에 적용한 경험을 바탕으로 자료(1500편의 일지)를 수집했으며 향시비교법을 바탕으로 2명의 연구자들의 상호간 검토 작업이 수반됩니다. 이들의 연구를 보면 2명의 협력적 작업이 동등한 역할과 비중으로 이뤄졌으며 이를 토대로 협력적 연구 수행의 긍정적 효과—교사교육 방법에 대한 이해를 도울 뿐만 아니라 교수 방법적 지식을 어떻게 개발한 것인지를 공유하게 함—를 기술한 셀프스터디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심준석과 김진희(2014)의 연구에서도 수업비평 공동체 활동에 참여한 교사(심준석)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료를 수집했으며, 자료 분석의 과정에서도 셀프스터디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연구자(김진희)뿐만 아니라 연구실 동료 2명에게도 검토 받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연구를 보면 2명의 연구자가 공동체 경험 속에서 자료를 얻고 또 다른 공동체 구성원들과 협력적 분석과정을 토대로 교사의 수업비평 경험에 대한 셀프스터디가 이뤄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김원정(2016)의 연구에서도 대학교 운동부 감독(연구자 자신), 코치, 선수들의 공동체 경험과 교사교육자의 3년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자료를 수집했으며, 연구 결과를 제시하는 부분에서도 ‘수업비평 워크숍’이라는 배움 공동체의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이의 연구를 보면 운동부 공동체의 경험뿐만 아니라 교사교육자로서 동료들을 비롯한 학생들과의 관계망을 읽을 수 있으며 운동부 감독과 교사교육자의 역할 갈등과 딜레마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교사교육자의 역할 갈등을 다룬 셀프스터디는 비슷한 입장에 처한, 특히 초임 교사교육자들의 사회화를 돕는 데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한다고 합니다(Richards & Ressler, 2016). 이영국(2016a, 2016b)의 연구에서도 약 8년 동안에 걸친, 타인들과의 운동 경험을 토대로 자료를 수집했으며, 자료 분석 과정에서도 셀프스터디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교사연구자들과 소통하면서 연구의 범주화를 검토 받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의 연구를 보면 타인이나 자신에게 코칭을 받거나 타인들과 운동하는 경험 속에서 자료를 얻고 교사연구자들과의 협력적 분석 과정을 토대로 코칭의 유형과 운동 습관의 의미를 밝히는 셀프스터디가 수행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3. 성장의 가능성 드러내기(연구 결과에서)

성장의 가능성 드러내기란, 셀프스터디를 수행할 때 동료들과의 협력적 과정 속에 문제 상황을 구조화하거나 ‘재구조화’⁴⁾하는 경험과(Barnes, 1998), 티칭에 대한 학습 경험뿐만 아니라 연구자의 새로운 시도를 통하여 얻게 되는 깨달음—어떤 것은 잘 되고, 어떤 것은 잘 안 되는지에 대한 깨달음—이 발생하는데(Samaras, 2011) 이와 같은 경험을 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문제 상황을 겪으면서 자신의 결핍을 인식한다는 것 자체가 ‘성장’ (growth)의 가능성을 의미하기 때문에(Dewey, 1916), 셀프스터디의 수행 과정 속에 겪는 곤란한 경험들을 드러내면서 연구자가 그것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지 제시하는 것이야말로 성장의 가능성과 성장의 과정을 드러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사교육자인 McNiff(1996)는 청각 능력이 손실되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기술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동료들이 자기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이며, 나머지 하나는 주위 사람들이 마음의 창을 닫아버리기 때문에 상호작용을 활발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학문적 지식을 실천적 지식보다 우위에 두고 학생들과 주위 사람들을 평가한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면서 오히려 학생들에게 자괴감을 느끼게 만들었던 자신의 태도를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자신의 청력 손실과 더불어 발생한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경험하면서 사람을 이해하는 데에는 학문적 지식보다는 따뜻한 배려와 친절, 용서 등과 같은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Dewey(1916)의 주장대로 경험으로부터 학습이 발생하며 학습을 통하여 성장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국내 체육과 교육과정 개발자인 유정애(2010)는 국가 교육과정 개발 책임자로서 겪는 부담감을 네 가지—교육과정 문서에 체육의 다양한 가치를 기술해야 하는 부담, 체육과 교육 내용 틀을 전환해야 하는 부담, 체육과 교육 내용의 학년별 체계를 고수해야 하는 부담, 교육과정의 현장 적합성을 높여야 하는 부담—를 드러내면서 부담감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제시합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교육과정의 이론적인 문제와 실제적인 문제점들과의 충돌이 있었음을 밝힙니다. 말하자면 이론과 실제 사이에서 발생하는 “살아있는 모순”⁵⁾(living contradiction)을 드러낸 글이라 볼 수 있는데(Whitehead, 1988), Samaras(2011)는 셀프스터디가 이러한 모순이 실제 상황에서 존재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기회와 자기가 처한 상황에 적합한 새로운 이론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합니다. 협력 학습 모형을 적용한 Fletcher & Casey(2014)의 연구에서도 모형에 대한 이해와 수업시간에 적용하는 것 사이의 어려움—갈등, 취약한 구조, 의심 등—을 이야기했으며 새로운 교수방법적 지식을 찾거나, 예비교사들의 가능성을 보면서 만족감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이들 연구의 공통점은 연구자 자신의 아픔이나 부담감, 어려움 등을 제시하면서 연구자 자신의 성장의 가능성과 성장 과정을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결핍, 곤란함, 미성숙 그 자체는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을

4) 재구조화는 연구자가 대상을 다르게 생각하거나 수업 시간에 일어나는 일을 바라보는 방법에 변화를 주며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실행 방법에 변화를 일으킵니다(Hamilton et al., 1998).

5) 이혁규 등(2012)은 “살아있는 간극”이라 번역합니다.

의미합니다. ‘살아 있는 모순’ 과 그에 따르는 나의 결핍을 피하고 감출 것이 아니라 셀프스터디를 통하여 성장의 과정을 드러내야 합니다.

Ⅳ. 나가는 말

정처 없이 글을 쓰다 보니 글이 갈팡질팡,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하지만 셀프스터디에 대한 희미한 윤곽 그리기 시도 그 자체에 가치를 두고 싶습니다. 운동도 자꾸 하다보면 실력이 늘 듯이, 이와 같은 글쓰기 또한 자꾸 쓰다보면 글이 세련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셀프스터디의 한계점, 설득력의 부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하여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면서 마칠까 합니다.

첫째, 글 속에 진실성(trustworthiness)이나 일관성(integrity)이 있어야 합니다. Hamilton & Pinnegar (2000)은 셀프스터디를 수행하는 연구자들의 외침 속에 진실성이나 일관성이 있어야 교사교육이나 수업 방면의 지속적인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진실성이란 글 속의 자료들이 생생한 경험에 바탕을 둔 내용들이어서 믿을 수 있다는 느낌을 줄 때 발생하는 특징이며, 일관성이란 글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글의 구조가 전개되며 글 속에 저자의 성실성과 신뢰감이 보일 때 발생하는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갖추기 위해선 그 다음 방안을 따르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한 가지일 것입니다.

둘째, 티칭과 코칭 경험에 대한 글쓰기 습관을 지녀야 합니다. 우리 학회의 정체성도 티칭과 코칭 속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티칭과 코칭의 경험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경험이기 때문에 소중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소중한 경험을 망각의 늪에 둘 것이 아니라 재생의 테잎 속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재생의 테잎이란 바로 티칭 또는 코칭 일지를 말합니다. 기이하게도 일지를 읽을 때면 티칭이나 코칭의 장면들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그 때 느꼈던 생생한 감정들, 고민들, 기쁨들이... Tinning(2014)도 ‘체화된 자신’ (embodied self)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자신의 경험들에 대한 감정이나 느낌들을 일지로 작성하기를 권합니다.

참고문헌

- 김원정(2016). 교사교육자와 운동부감독으로서의 역할 갈등 경험에 관한 셀프 연구.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23(2), 63-90.
- 김진희(2011). Self-study를 통한 실천공동체의 학습문화. **교육문화연구**, 17(3), 59-86.
- 김화자(2014). 모리스 메를로퐁티: 상호세계의 현상학. 한국현상학회(편), **프랑스 철학의 위대한 시절**. 서울: 반비.
- 서동은(2016). 후설과 하이데거의 현상학 이해에 관한 소고: 데카르트 해석을 중심으로. **철학과 현상학 연구**, 69, 63-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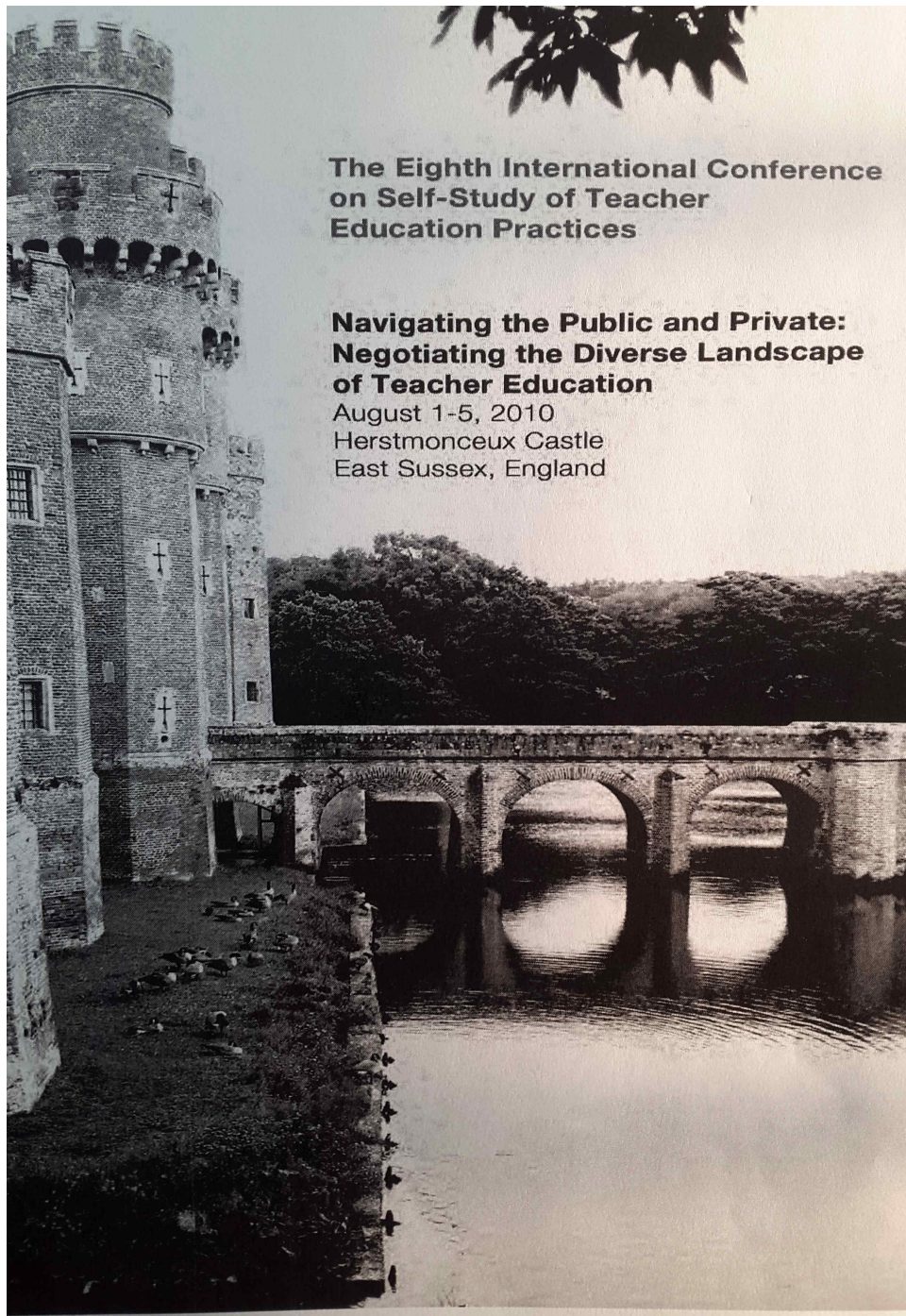
- 유정애(2010). 국가수준 체육과 교육과정 개발 책임자의 개정 부담에 대한 셀프 연구.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17(2), 1-20.
- 이남인(2004). **현상학과 해석학**.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이남인(2005). 현상학과 질적연구방법. 철학과 현상학 연구, **한국현상학회**, 제24집. 91-121.
- 이남인(2009). 후설의 초월론적 현상학과 메를로-퐁티의 지각의 현상학. **한국현상학회 창립30주년 및 메를로-퐁티 탄생100주년 기념학술대회 자료집**, 131-159.
- 이남인(2014). **현상학과 질적 연구: 응용현상학의 한 지평**. 파주: 한길사.
- 이혁규, 심영택, 김남수, 이현명(2012). 교사의 자기연구(Self-Study) 필요성 탐색. **교육문화연구**, 18(2), 5-43.
- 이영국(2016a). 셀프스터디를 통한 테니스 코칭 유형 드러내기.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23(1), 87-108.
- 이영국(2016b). 셀프스터디를 통한 운동습관의 의미와 맥락 드러내기: Dewey의 습관개념을 토대로.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23(4), 1-21.
- 이영국, 이재용(2013). 경쟁활동의 학습과 교수 체험에 대한 현상학적 셀프연구.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20(1), 85-107.
- 오중근(2015). 체육수업에서 교사가 지각한 교사-학생 관계 형성에 관한 자기연구.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22(4), 129-149.
- 심준석, 김진희(2014). 교사의 수업비평 경험 과정에 대한 자기연구.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21(4), 31-54.
- 조광희, 김희경, 최재혁, 정용재(2016). 과학교육 연구에서 셀프스터디의 특징과 가능성 탐색: 이론적 배경과 기존 연구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한국과학교육학회지**, 36(3), 457-470.
- 지영래(2014). 장폴 사르트르: 현상학적 실존주의. **한국현상학회(편), 프랑스 철학의 위대한 시절**. 서울: 반비.
- 최명관(1983). **방법서설·성찰·데카르트 연구**. 서울: 서광사.
- 최의창(2004). 교과교육연구의 세 방향. **교육마당**21, 6, 38-42.
- 최의창(2005). 통합적 스포츠지도: 하나로 수업모형의 체육교사교육에의 적용.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12(1), 1-30.
- 최의창(2010). **인문적 체육교육과 하나로 수업**. 서울: 레인보우북스.
- 최재혁, 조광희, 정용재, 김희경(2016) 탐색, 갈등, 도전, 그리고 변화: 물리교과교육 수업을 위한 한 교사교육자의 셀프스터디. **한국과학교육학회지**, 36(5), 739-756.
- Barnes, D. (1998). Forward: Looking forward: The concluding remarks at the Castle conference. In M. L. Hamilton, S. Pinnegar, T. Russell, J. Loughran, & V. LaBoskey (Eds.), *Reconceptualizing teaching practice: Self-study in teacher education* (pp. ix-xiv). London: Falmer Press.
- Dewey, J. (1916). *Democracy and education: An introduction to the philosophy of education*. New York: Macmillan.
- Feldman, A., Paugh, P., & Mills, G. (2004). Self-study through action research. In J. Loughran, M. L. Hamilton, V. K. LaBoskey, & T. Russell (Eds.), *International handbook of self-study of teaching and teacher education practices*. Dordrecht, The Netherlands: Kluwer Academic Publishers.
- Fletcher, T., & Casey, A. (2014). The challenges of models-based practice in physical education teacher

- education: A collaborative self-study. *Journal of Teaching in Physical Education*, 33, 403-421.
- Freese, A. R., & Makaiau, A. S. (2012). Negotiating the diverse multicultural landscape through self-study and our students' voice. In J. R. Young, L. B. Erickson, & S. Pinneagar (Eds.), *Extending inquiry communities: Illuminating teacher education through self-study* (pp. 114-117), *Herstmonceux Castle, East Sussex, England* UT: Brigham Young University.
- Hawley, T. S., Hostetler, A. L., Crowe, A. R., Smith, Y., & Ladd, K. (2012). Promoting purposeful practice through collaborative self-study of practice. In J. R. Young, L. B. Erickson, & S. Pinneagar (Eds.), *Extending inquiry communities: Illuminating teacher education through self-study* (pp. 155-158), *Herstmonceux Castle, East Sussex, England* UT: Brigham Young University.
- Hamilton, M. L., & Pinneagar, S. (1998). Conclusion. In M. L. Hamilton, S. Pinneagar, T. Russell, J. Loughran, & V. K. LaBoskey (Eds.), *Reconceptualizing teaching practice: Self-study in teacher education* (pp. 235-246). London: Falmer Press.
- Hamilton, M. L., & Pinneagar, S. (2000). On the threshold of a new century: Trustworthiness, integrity, and self-study in teacher education. *Journal of Teacher Education*, 51(3), 234-240.
- Hamilton, M. L., Pinneagar, S., Russell, T., Loughran, J., & LaBoskey, V. K. (Eds.). (1998). *Reconceptualizing teaching practice: Self-study in teacher education*. London: Falmer Press.
- Loughran, J. J., Hamilton, M. L., LaBoskey, V. K. & Russell, T. (Eds.). (2004). *International handbook of self-study of teaching and teacher education practices*. Dordrecht: Kluwer.
- McNiff, J. (1996). The other side of silence: Toward a theory of listening. In J. Richards, & T. Russell (Eds.), *Empowering our future in teacher education. Proceedings of the firs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elf-study of teacher education practices* (pp. 1-5), *Herstmonceux Castle, East Sussex, England* Kingston, ON: Queen's University.
- Richards, K. A. R., & Ressler, J. D. (2016). A collaborative approach to self-study research in physical education teacher education. *Journal of Teaching in Physical Education*, 35, 290-295.
- Richards, J., & Russell, T. (Eds.). (1996). *Empowering our future in teacher education. Proceedings of the firs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elf-study of teacher education practices*, *Herstmonceux Castle, East Sussex, England* Kingston, ON: Queen's University.
- Samaras, A. P. (2011). *Self-study teacher research: Improving your practice through collaborative inquiry*. London: Sage.
- Samaras, A. P., & Freese, A. R. (2006). *Self-study of teaching practices*. New York: Peter Lang.
- Samaras, A. P., & Freese, A. R. (2009). Looking back and looking forward: An historical overview of the self-study school. In C. A. Lassonde, S. Galman, & C. Kosnik (Eds.), *Self-study research methodologies for teacher educators* (pp. 3-19). Rotterdam: Sense Publishers.
- Tinning, R. (2014). Reading self-study in/for physical education: Revisiting the zeitgeist of reflection. In A. Ovens, & T. Fletcher (Eds.), *Self-study in physical education teacher education: Exploring the*

interplay of practice and scholarship (pp. 153-167). London: Springer.

Whitehead, J. (1988). Creating a living educational theory from questions of the kind, 'How do I improve my practice?' *Cambridge Journal of Education*, 19(1), 41-52.

부록1. Herstmonceux Castle



부록2: 운동일지와 체육수업일지

<운동일자: 테니스 일지의 사례>

160904⁶⁾빈 공간이 보인다

상대팀이 네트를 점령했지만 그들의 빈 공간을 다 커버하지는 못한다는 것. 상대팀 두 명이 네트 가운데 몰려 있으니 양옆 빈 공간이 보이는 것이 아닌가. 특히 나를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공을 보내니 그 공을 받지못한다.

160904부드러워졌어

테니스 샷이 부드러워졌다는 소리를 듣는다.

칭찬은 계속 운동의 즐거움을 느끼게 한다.

오늘 아침 일찍 가서 코트문도 열고 비질하면서 낙엽도 쓸고.

동료들에게 칭찬 받았다.

160904백스트로크의 안정성

백스트로크로 상대방 코트 깊숙히 보내면 리턴이 불안정하여 우리편 네트 점령자가 유리한 지점에 있게 된다. 미숙하게 처리된 볼을 과감하게 발리로 반격할 수 있다.

160904약간 라인을 벗어나는 것 같지만

게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그냥 진행한다.

공만 바라보기 때문에 라인을 정확히 본다는 건 무리다. 내 파트너가 보지 못하고 상대편 스스로가 아웃을 콜 하지 않으면...

상대는 김국장에다, 광무형. 나는 재범형과 파트너.

이기기 위한 게임이 아니라 즐기기 위한 게임이기에. 몇번 아슬아슬하게 아웃되는 것 같은 것이 있었으나 그냥 넘어간다.

<체육수업일지의 사례>

161022자세를 바꾸니 잘 되고 그 자세를 따라한다

4-3체육시간, 똥똥이 남자애가 무릎을 꿇고 플라이 디스크를 표적 그물망 안으로 넣으니 그 모습을 지켜본 남자애가 따라한다.

그 때 디스크가 아슬아슬하게 비껴가지만 다른 친구들도 흉내낸다.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웃을 수밖에.

또래 간 학습이 발생한 것.

한 여자애가 두손 사이에 디스크를 합장하듯 끼워놓고 표적을 향해 던진다. 모처럼, 3-4차례 중 한번

6) 160904는 2016년 9월 4일을 의미한다.

성공한다. 그 모습을 본 여자에게 따라한다.

160922무대 위에 앉아서 배드민턴을

1차시엔 앉아서 지켜보기만 하게했는데(남학생은 체육관 바닥에서 배드민턴을, 여학생은 무대 위에 앉아서 남학생이 배드민턴 하는 것을 지켜보게 함)...

7개 학급의 체육수업을 다 치룬 다음, 다시 똑같은 방식으로 수업하자니...달리 방법을 찾아보다가 빈스윙의 원리를 생각한다.

갑자기 생각이 난다. 앉아서 기다리는 팀에게 과제를 주자는 아이디어. 무대 위에 앉아서 라켓으로 콧 튀기기. 내가 먼저 콧을 던지면 학생은 콧을 라켓으로 받아 나에게 보내는데...내가 받기 좋게 콧을 보내야만 '1회 성공'. 총3회 성공하면 게임을 하게 한다. 학생들의 집중력이 높아진다. 라켓 면에 정확히 닿아야 하며, 세기 조절도 약하게 해야 나에게 사뿐히 포물선을 그리며 떨어질 수 있기에. 정확한 임팩, 세기 조절에 실패하면 내가 콧을 잡을 수 없기에 학생들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힘의 세기를 조절하며 정확한 임팩을 위해 콧에 집중한다.

160929며칠 전부터 스포츠강사의 수업을 보며

표적 도전 때 활용해야겠다는 생각이.

쉬는 시간에 그를 만나 그 도구들이 어디에 있는지 묻는다.

161107 끊임 없는 고성

체육관에서 배구 토스 수업을 하는데...

집중도가 떨어져 ...

“이마 위!” 라고 소리를 지르면 학생들은 이마 위에 손바닥 위에 공을 얹힌다.

이 때 공의 위치가 제각각. 목 앞, 머리 뒤 등이다. 이리저리 둘러보며 이마 위에 올려놓으라고 한다.

그 다음 호루라기를 한번 불면 그 소리에 맞추어 공을 토스하라고 한다. 그 공은 맞은 편 파트너를 향해 날아간다.

공의 궤적도 제각각이다. 이 때, 포물선 궤적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그런데 왜 포물선 궤적이 중요함을 설명하지 못했음을 지금 글을 쓰면서 반성한다.